

270 YEARS
OF DOING BETTER
IF POSSIBLE

*And That is
always
Possible*



*The
Quest*



VACHERON CONSTANTIN
GENÈVE



ANNIVERSARY



K O R E A . C H I N A . I N D O N E S I A

August

Noblesse

임노식의

감각

열기 속에 피어오른
아지랑이가 공기를
뜨겁게 감싼다.
흩어지는 감각을
파고들며 부드럽게
휘어잡는, 생동하는
색감의 작품.
에디터 정희운



© 2025. Lim Nosik,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cario Gallery
들꽃 - 풍경 23, Oil on Canvas, 190x117cm, 2025.

임 노 식 Lim Nosik

임노식의 회화에 나타나는 풍경은 일찍이 그가 마주한 광활한 자연에 대한 감각에서 비롯된다. 단순히 재현된 풍경이 아닌, 복합적 감각과 정서를 내재한 그의 회화 속 풍경은 새로운 장소적 경험을 이끌어낸다. 묘사된 풍경을 다시금 투명한 오일 파스텔로 덮어 뭉개는 과정은 최근 연작에서 대상과 자신의 층위를 감각하는 방식이다. 시간과 공간이 축적된 듯한 표면 질감과 모호하고 흐릿한 형태가 드러나며, 오히려 대상의 객관적 실재 위로 서정적 심상을 떠올리게 한다. 캔버스 위에 펼쳐진 들꽃과 안개처럼 부유하는 빛의 풍경은 사라지고 잊히는 한순간의 생명력을 담아내며, 잠재된 기억과 감각을 더듬게 한다. 화면 속에서 외형과 내면, 사실과 심상이 레이어를 이루어내는 그의 풍경은 회화가 지닌 감각적 깊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의 독백이자 고백으로 다가온다.